

성모님의 달, 성모 성월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매년 5월 신자들이 매일 성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서방 가톨릭교회에서 성모 성월의 역사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반 민중들의 봄 축제나 5월 축제가 서서히 그리스도교화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5월과 성모님을 처음으로 연결한 사람은 카스티야의 왕 알폰소 10세(1221~1284)입니다. 그는 5월이 주는 자연의 풍성함을 노래하면서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시는 마리아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성 필립보 네리(1515~1562)는 젊은이들에게 5월 한 달 동안 성모님께 꽃다발을 바치고 찬미 노래를 부르며 선행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모 성월 신심 행사는 18세기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25년 예수회원 디오니시가 『마리아 성월』이라는 책을 출간하자 금세 로마와 밀라노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책에는 성당뿐 아니라 집과 길에서 성모 성월에 실천할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성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봉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훗날 제노바의 주교가 되는 사포리니는 1747년 『성모성월』이라는 책을 냈고, 1758년에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 또 다른 『성모성월』이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성모 성월의 정착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854년 12월 8일, 복자 비오 9세 교황(1846~1878 재위)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선포하면서 교회 내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절정에 달합니다. 이후, 성모 성월 행사가 공식으로 거행되었고, 많은 교황은 성모 성월 신심을 잘 간직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하였습니다. 교황 비오 12세(1939~1958 재위)는 “성모 성월 신심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례에 속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적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1963~1978 재위)은 “성모 성월이 세계 곳곳의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라며 “교회와 가정 공동체 그리고 개인은 한 달 동안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사랑을 마리아께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모님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성모 성월 신심을 위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전례 예식은 없습니다. 단, 성모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말씀 전례의 양식을 빌어 새롭게 구성한 ‘성모의 밤’을 거행하거나 매일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도를 봉헌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성모의 밤에선 성모님께 바치는 글, 성모 호칭 기도, 꽃과 촛불 봉헌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모 성월을 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인 성녀가 성모님을 공경했던 것처럼 하느님께 대한 성모님의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성모 성월에도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선행과 기도로써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